

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면 좋습니다.
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한다면,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!

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은 많은데요.

여름엔 조금 덥게, 겨울엔 조금 춥게 지내는 방법, 양치를 할 때는 컵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.

그중에서 학교 급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“골고루 다 먹는 것!”

식생활 습관도 좋아지고, 탄소중립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

“골고루 다 먹는날” 참여하기

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하고 싶나요?

건강해지고 싶나요?

군서미래국제학교 “골고루 다 먹는날”에 참여하세요 !!

○ 기 간 : 6월 매주 화, 수, 목요일
(골고루 먹는날 날짜를 확인하세요)

○ 방 법

- 1) 음식은 먹을 만큼만 받고,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식사해요.
- 2) 단, 모든 음식은 최소 한입분량은 받아서 먹어야 해요.
(알레르기식품, 매운음식 제외)
- 4) 국물은 남겨도 괜찮아요.
(뼈, 과일껍질은 남겨도 돼요)

○ 다 먹으면?

영양선생님 또는 급식서포터즈학생에게 스티커를 받아 스티커판에 붙여주세요.



환경의 날

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'유엔인간환경회의'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, 매년 6월 5일입니다.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입니다.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'환경의 날'로 제정했습니다.

※ 출처 : [네이버 지식백과] 세계 환경의 날 (시사상식사전)

※ 자료출처 :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리플렛(2013), 한국환경공단 중고등학생 홍보포스터 /그림출처 : 학교급식캐릭터(교육부)

※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고딕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